

Inl View

미래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대학의 변화

정우성 (POSTECH 교수)

최근 우리는 급격한 기술과 사회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상상 속에 머물던 기술이 어느새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있고, 연일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이 등장한다. 기업의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유니콘 기업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이 출현한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예상되는 건 아니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하락 뿐 아니라, 잠재성장률도 3%대에서 20년 내에 1%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KDI는 예측한다.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혁신 순위도 불과 10년 전에는 10위권 내였으나, 현재는 20위 주변을 맴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인 우리나라는, 2030년이면 고령인구가 전체의 1/4을 차지한다. 젊은 세대의 고령층 부양 의무 증가뿐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어 현재의 경제산업 구조를 어찌 변화하고 혁신해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스마트사회 등의 다양한 개념과 구호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변화의 움직임을 담고 있다. 비단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는다. 선진국 뿐 아니라 신흥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선도하기 위한 발버둥이 한창이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사회 전반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그간 우리의 성장동력으로 훌륭한 역할을 해온 산업과 사회의 과감한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야 한다. 해외 기술 도입과 생산성 향상으로 대표되는 성장전략, 주력산업의 구성 등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제도와 규제도 탈바꿈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의 핵심 자산인 인재와 지식의 확보를 위한 혁신도 필요하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어온 우수한 인력과 과학기술 역시 새로운 환경에 맞춘 혁신 없이는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다.

사회의 고급 인력과 첨단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대학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등교육법에서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많은 고민이 담긴 정의이다. 대학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교육이다. 다만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시대에 따라 변하고, 대학에 요구하는 기능이 보다 다양화되고 있다.

초기 대학은 교육과 연구 활동의 목적이 스스로의 지식 탐구에 있었으며, 사회, 산업, 경제 등에 대한 기여는 고려하지 않았다. 당시 대학의 연구 결과물인 지식은 공공재로 취급되어, 특정 인물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 없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대학의 과학연구에 정부의 예산이 본격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한다. 당시는 대학의 기초과학연구가 응용과학으로서의 기술로 이어지고, 이것이 제품과 시장을 만들어 경제 발전을 선도한다는 선형 모형에 따른 것이다. 이후 대학의 연구 역량이 커지면서 산업체와의 협력 연구가 이루어진다. 공동연구, 장학금 지원, 인력 파견 및 교류, 자문 등의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대학의 연구기능이 기초에서 응용분야로 확장된다. 최근에는 사회맞춤형학과, 산업체 계약 학과 등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1980년 미국의 베이돌 법 도입 이후 대학의 연구는 본격적으로 지식의 이전으로 역할을 확장한다. 베이돌 법은 대학에서의 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이 개발한 특허의 대학 소유, 연구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상업적 이용 촉진 등을 통해 대학의 역할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후 미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기술이전 조직이 설치되어 대학의 기술이전이 활성화되었다. 이즈음 소개된 기업가적 대학 (Entrepreneurial University) 개념은 대학의 역할이 더욱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가적 대학은 지식 뿐 아니라 기술도 생산하는 조직으로, 산업계와 함께 일하는 것을 넘어 산업계를 위해 일하는 형태의 활동이 커진다. 더이상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영리조직으로써 기능하는 대학은 지식재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수익 창출을 위해 움직인다. 정부 지원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수익을 늘리고 부분적인 정부 재정지원을 받으며, 특정 산업체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대학이 나타난다. 기업가적 대학에서의 교수는 교육자를 넘어서 연구조직의 경영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연구과제 수주와 기술이전 및 사업화, 벤처 설립 등과 같은 부의 추구가 강조된다.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 대학의 기능과 역할이 확장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대학의 형태가 출현하였다. 이제 대학의 역할을 한두 문장으로 쉽게 정의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시 고등교육법으로 돌아가보면, 대학의 가치는 최종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함에 있다. 대학이 추구해야 할 가치 중 사회의 주역이 될 인재를 키우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대학은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고, 각 대학마다 추구하는 인재상과 역할, 기능이 다르다. 특히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가 단순히 몇 가지의 덕목으로 규정될 수 없다. 획일

적인 교육과정이지 아니라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인력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다른 대학의 가치는 홀보트대학 이후 강조되어 온 연구가 가져올 우리의 미래이다. 기초학문을 비롯하여 산업적으로 응용 가능한 기술과 디자인, 경영기법 등 다양한 영역과 스펙트럼에서의 연구는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것이다. 최근 사회는 대학이 새로운 제품과 산업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기를 더욱 기대하고 있다. 최초의 대학이 설립된 지 1,00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인재양성의 고유 가치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후 연구대학, 기업가 대학 등으로의 역할 확대가 있었다. 다시 한번 대학은 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확장을 요구받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사회의 혁신 중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사람과 지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의 혁신은 가장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것이다.